

두 가지 측면의 세대 갈등이 재미 한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지 숙(호서대학교)

I. 서론

2000년 미국 인구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수는 약 11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1/3 이상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30만 명 이상의 한인 아동·청소년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인 청소년의 수는 유학이나 이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겪는 문제나 갈등,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청소년비행을 들 수 있다. 미국 내 한인 청소년의 비행 또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며 한인 신문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다. 코리아 타임즈(9/23/1997)에 의하면, 남부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년 한 해 동안 일반 범죄율은 감소한 반면, 한인 청소년 구속율은 22%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NAPAFASA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Families Against Substance Abuse) (2000)는 한인 청소년 조사 대상자의 28%가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18%가 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이 있고, 14%가 지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인 청소년들의 조직폭력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Min, 1995).

청소년 문제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세대(부모-자녀) 갈등이 청소년 문제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Chae, 1990; Hall, 1987; Hilliday-Scher, 2000). 세대 갈등은 청소년 비행이나 약물사용 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 한인 청소년과 같은 이민가정의 경우 부모-자녀 갈등은 일반 청소년과는 달리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기에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일

반적인 부모-자녀 갈등 (예, 용돈, 친구, 귀가시간 등)이고, 둘째는 이민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부모는 한국문화에, 자녀는 미국문화에 익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이다 (Farver, Narang, & Bhadha, 2002; Kwak & Berry, 2001; Lee & Liu, 2001). 따라서 대부분이 이민 자녀인 한인 청소년의 경우 세대 갈등을 조사함에 있어 청소년기에 따른 일반적인 갈등과 문화차이에 의한 세대 갈등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문화 차이로 인한 세대 갈등을 측정할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1)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비행, 음주, 흡연, 마약, 조직폭력 등) 현황 파악; (2) 청소년기로 야기된 일반적 세대 갈등과 한인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관계; (3) 부모-자녀간의 문화 차이로 야기된 세대 갈등과 한인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4) 한인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함에 있어 청소년기의 일반적 세대갈등보다 문화적 세대갈등이 더 강력한 예측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함

환언하면, 우선 본 연구는 이민에 따른 문화적 차이로 야기된 세대 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척도를 개발한 후, 이를 적용하여 청소년기에 따른 일반적 세대 갈등보다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이 한인 청소년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데 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세에서 18세까지의 재미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조사는 새로 개발된 측정도구 (문화적 차이에 의한 세대갈등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Pittsburgh의 한인교회 2곳에서 이루어졌고 본 조사는 Virginia 주의 Fairfax County에서 한인교회 11곳과 학원 1곳에서 이루어졌다. 25명의 한인 청소년이 모의 조사에, 그리고 142명의 한인 청소년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49% 여성, 51%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16세이고, 평균 미국거주 기간은 9년 11개월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게 배포된 설문지는 ① 일상적인 세대갈등척도, ② 문화차이로 야기되는 세대갈등척도, ③ 문제행동척도, ④ 인구 통계학적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일상적인 세대갈등척도는 30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귀가시간, 용돈, 복장, 시간활용 등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로 야기되는 세대갈등척도는 기존문헌과 2회의 포커스 그룹 미팅을 통해 30항목이 개발되었다. 포커스 그룹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있는 한인 학생들과 청소년 자녀를 가진 한인부모들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 부모와의 언어장벽, 부모와의 문화차이 등 한인 이민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갈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 통계학적 질문 중 청소년의 연령, 미국 거주기간, 성별은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 적용되었다.

3. 연구결과

한인 청소년 응답자의 대부분은 비행이나 기타 문제행동을 자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부모님께 거짓말”(평균 = 1.31)과 “시험에서 부정행위”(평균 = 1.05)로 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1회 이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의 항목들은 빈도가 1회 이하이거나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한 이후로 응답자의 39%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23%가 담배를 피운 적이 있고, 17.6%가 무기를 소지한 적이 있고, 14%가 가출한 적이 있으며, 13%가 대마초를 피워본 경험이 있으며, 11%가 조직폭력집단과 관련된 적이 있고, 9%가 대마초를 제외한 다른 마약종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5.6%가 무기를 소지하고 폭력에 개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중대한 문제행동을 야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응답자 중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자주 일으키는 것($r = .29, p < .001$)으로 나타났다¹⁾. 세대갈등의 두 가지 측면 모두 청소년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세대갈등과 한인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는 $r = .32, p < .001$ 로 조사되었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세대갈등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또한 $r = .36, p < .001$ 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변수	연령	성별	거주기간	일반적인 세대갈등	문화적 세대갈등
연령	1				
성별	.02				
거주기간	-.03	-.05			
일반적인 세대갈등	-.16	.19*	-.01		
문화적 세대갈등	-.01	.09	.10	.77**	
문제행동	.14	.29**	.22*	.32**	.36**

* $p < .05$

** $p < .001$

1)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한 t-test 값은 $t = 3.83, p < .001$ 로 나타났다. 1=여성, 2=남성

기존연구결과와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나이, 성별, 미국 내 거주기간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위의 세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래 [표 2]는 통제변수(model 1)와 두 가지 측면의 세대갈등 변수(model 2)가 한인 청소년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2] 세대 간의 갈등 변수를 통해 한인 청소년 문제를 예측한 다중회귀 결과

Model	변수	B	Beta	R	R ²	R ² INC	P INC
1				.39	.16	.16	<.001
	나이	.02	.13				
	성별	.11	.31				
	거주기간	.001	.25				
2				.51	.26	.10	<.001
	문화적 갈등	.05	.23				
	일반적 갈등	.02	.11				

두 가지 측면의 세대 갈등 요소는 한인 청소년 문제행동 분산(variance)의 26% ($R^2=.26$, $p<.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두 요인이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또한 문화적 세대 갈등에 의한 한인 청소년 문제예측 결과는 $\beta =.23$, $P=.06$, 일반적 세대 갈등은 $\beta =.11$, $p=.37$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세대갈등이 한인 청소년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청소년기에 의한 일반적 세대갈등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예측변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전술했듯이 한인 청소년들 중 문제행동에 가담하는 횟수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의 한인 청소년들이 마약사용, 무기소지, 조직폭력가담 등 중대한 문제행동을 야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인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이들도 언제든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으로서 두 가지 측면의 세대 갈등이 연구되었고 이 중 부모와의 문화 차이에 의한 세대 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더욱 영향력이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문화 차이에 의한 갈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기의 갈등보다 더 중요한 문제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화차이를

줄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과 횡단면적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도출한 것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2005년 한해 국내에서 이뤄진 국제결혼 비율이 13.6%이며, 2010년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매일신문, 8/01/06). 이와 같이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한국도 다(多)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들에 대한 복지·교육 정책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문화와 한국에서 자라는 자녀의 문화가 다를 경우 자녀들이 부모와 겪는 갈등이 커지며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실행이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Chae, M. K. (1990). Korean-American juvenile delinquency in relation to acculturation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Farver, J. M., Narang, S. K., & Bhadha, B. R. (2002). East Meets West: Ethnic Identity, Acculturation, and Conflict in Asian Indi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3), 338-350.
- Hall, J. A. (1987). Parent-Adolescent Conflict: An Empirical Review. *Adolescence*, 12(88), 767-789.
- Halliday-Scher, K. (2000). A model of parent and friend relationship effect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 Korea Times (9/23/1997). Korean-American Teenage Crime Rate on the Rise, 6(8), p7.
- Kwak, K., & Berry, J. W. (2001).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cculturation among Asian families in Canada: A comparison of Vietnamese, Korean, and East-Indian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6(3), 152-162.
- Min, P. G. (1995). Korean Americans. In Min, P. G. (Ed.).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Families Against Substance Use (NAPAFASA), (May 9, 2000).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Use Among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Students in California: Findings from a 1995 Survey. <http://www.napafasa.org/APIATOD.html>.
- Lee, R. M., Liu, H. T. (2001). Coping with intergenerational family conflict: Comparison of Asian American, Hispanic,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10-419.
- 매일신문 (8/01/2006). 이주 여성과 코시안 자녀